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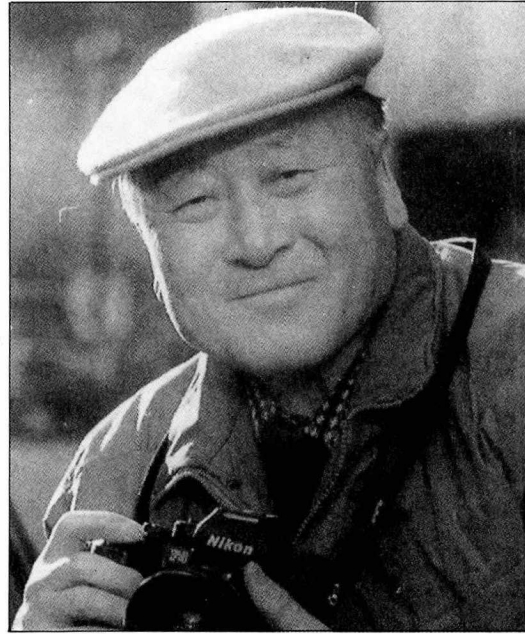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뜻한 향수

윤주영의 다섯번째 사진집 「탄광촌 사람들」

윤주영씨의 다섯번째 사진집 「탄광촌 사람들」(사진예술사)은, 그의 기왕의 사진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라면 그 소재부터가 다소 이색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내가 만난 사람들」(1987) 「다시 만난 사람들」(1988)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1990) 「동토의 민들레」(1993) 등으로 이어진 그의 작가가적 이력이 遇遊天下, 諸國漫遊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이번의 「탄광촌 사람들」은 강원도 지역 탄광촌의 모습들만 집중적으로 카메라에 담고 있어서다. 히말라야나 안데스, 사할린 등 바깥으로 향해졌던 카메라 아이가 오랜 편력과 주유 끝에 마침내 우리 땅 안의 궁벽한 오지로 돌려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서 「탄광촌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사진들과 격절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순히 피사체의 '國籍'이 달라졌을 뿐 그의 사진의 이면을 흐르는 정신은 한결같다. 이명동씨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의 민감한 문제의식과 따뜻한 인간미"가 그것이다. 윤주영씨 자신의 말을 빌리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뜻한 향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휴머니즘의 미학'이란 일관성을 지닌다.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실되기 전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그는 "허물어져가는 탄광촌 속에서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의 지혜와 도리를 찾고 싶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윤주영씨가 1990년부터 올초까지 5년동안 태백 도계 철암 사북 고한 영월 등지를 수없이



윤주영씨의 그가 최근 상재한 사진집 「탄광촌 사람들」 중의 한 작품.

오가며 보고 만났던 탄광촌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 책의 정조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스산하다. 함박눈이 내리는 새벽 여섯시 반 아내가 짜준 도시락을 싸들고 종종히 집을 나서는 젊은 광부의 모습이 그렇고,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는" 지하 2천미터의 막장에서 한가치 담배를 풍초가 되도록 깊이 빨아대는 모습이 그렇다. 防塵마스크를 쓴 選炭場의 아주머니는 어딘지 피곤에 찌든 모습이고, 깨어진 유리창에 찢겨나간 비닐이 깃발처럼 펄럭이는 폐광의 잔해는 마냥 쓸쓸하기만 하다. 오랜 탄광일로 규폐증 환자가 돼 한가닥 비닐호스에 호흡을 의존한 채 거져가는 목숨을 바라만 보는 안타까움과, 폐광의 비운



과 함께 맞는 실직의 스산함이 또한 거기에 있다.

물론 「탄광촌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계가 마냥 우울하고 처연한 것만은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몫의 삶을 꾸려가는 성실성과 건강함이 거기 있고, 탄광촌 아이들의 천진스런 활기도 보기에 썩 좋다. 그런가 하면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워 출가시킨 뒤에도 여전히 일하는" 選炭婦들에게선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우리들의 장한 어머니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주영씨의 카메라 아이는 탄광촌의 그들을 낱알이 파헤쳐 고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다. 그럼으로써 그

는, 독자들로 하여금 탄광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한번 더 귀 기울이도록 만든다.

50대에 사진을 시작한 늦깎이로 15년째 다큐멘터리 사진을 고집해오고 있는 윤주영씨는 사진으로 말고도 꽤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 신문사 편집국장을 비롯해 교수, 국회의원, 칠레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문공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출판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냈던 이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철저한 사진작가다. 사진으로 생계를 꾸리지는 않지만 삶의 전부를 사진에만 투입한다는 점에서, 윤주영씨는 엄연한 프로 사진작가다.

古今の 興망성쇠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東洋政治의 거울!!

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의 完結篇

治平要覽

중국의 周代로부터 元末明初까지, 우리나라의 箕子朝鮮으로부터 高麗末까지 행정·군사·경제·외교 등 전반에 걸쳐 중요사실을 수록한 것으로서, 세종 23년에 편찬하였다.

李佑成 編

原本 150卷 16,000餘面の 방대한 量을 34冊으로 合編
신국판 34冊 케이스 / 각권 30,000원 / 총 1,020,000원